대한간호학회지 제37권 제3호, 2007년 4월
J Korean Acad Nurs Vol.37 No.3, 353-364, April, 2007

통찰(Insight)의 개념 분석

황 지 원[1)]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자신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이해시키려고 할 때, 또는 아주 새로운 어떤 것을 정의하려고 할 때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의사소통 즉, 서술 및 설명에 곤란을 겪게 된다. 개념은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벽돌 즉, 지적인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개념은 어떠한 현상에 대한 지적인 이미지로서, 어떤 사물이나 활동에 대하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혹은 구상과 같은 것이다. 개념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데 이용된다(Walker & Avant, 1995).

개념은 명확하게 조작적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연구에서 종종'변수'로 이용된다. 연구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개념 간의 관계가 증명되었을 때, 이 개념 간의 관계를 서술한 것을 진술이라 하며, 진술이 어떤 현상에 대한 서술, 설명, 예측, 통제에 유용하게 사용될 때 이론이라 한다. 즉,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은 현상에 대한 이론개발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념분석은 간호실무 또는 간호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이다. 즉, 개념분석은 개념의 속성을 정의하기 위한 언어적인 시도이며, 개념분석을 통해 그 개념의 정확한 구성타당도를 지니는 조작적 정의를 서술하게 되는 것이다(Walker & Avant, 1995).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통찰'은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였을 때, 시행착오법에 의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성의 중요한 작용(Lee, 1999)을 나타내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사고과정의 핵심부분인 통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문제해결에서의 통찰의 역할에 관해 연구해왔다. 이의 영향으로 교육학에서는 문제 상황에 포함된 여러 요소들 사이의 관계성을 인식하는 통찰에 의해서 학습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Pyun, 2001) '통찰학습'이라는 이론을 학습이론 중의 하나로 체계화하여 이용하고 있다.

간호학에서 통찰은 간호사의 임상실무 수행능력과 관련하여 임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반면, 그 의미가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아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Johnson (1994)이 예술로서의 간호(nursing art)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통찰에 대해 언급하였다. Johnson(1994)은 간호실무 상황이 점차로 복잡해짐에 따라 간호사는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불확실한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된다고 하였다. 환자의 상황이 복잡해지면 환자가 자신의 요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거나, 자신의 요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간호사는 환자의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야 하며, 그 상황에서 적절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Johnson(1994)은 '예술로서의 간호(nursing art)'의 첫 번째 의미로 '환자와 마주함에 있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들면서, 이러한 능력은 직관, 통찰, 지각능력, 전체를 보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Johnson(1994)이 제시한 복잡하고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은 환자 상황은 임상현장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이 매 순간 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환자와 마주함에 있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력이라

주요어 : 통찰, 개념 분석
1)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박사과정, 삼성서울병원 수간호사
투고일: 2007년 1월 18일 심사완료일: 2007년 3월 15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이해서는 우선 직관, 통찰, 지각능력, 전체를 보는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간호교육 영역에서 행해져야 하겠다.

다행히 Shin(1994)에 의해 직관의 개념분석이 이루어져 간호교육 측면에서의 간호사의 사고양식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나, 간호학에서 통찰의 개념 분석은 국내외를 통틀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학에서 '통찰학습'을 학습이론으로 체계화하여 이용하고 있음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통찰의 개념 분석을 통해 그 속성을 파악하고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에서 '통찰' 개념을 명확하게 사용하게 하고, 나아가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통찰 개념의 명확한 속성을 규명하여 그것의 모호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를 도우며, 이론적 기초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Walker와 Avant(1995)의 개념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을 선정한다.
둘째, 개념분석의 목적을 결정한다.
셋째, 개념의 사용범위를 확인한다.
넷째, 개념의 정확한 속성을 규명한다.
다섯째, 개념의 모델사례를 구성한다.
여섯째, 개념의 경계사례, 반대사례, 창안된 사례를 구성한다.
일곱째,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여덟째, 경험적 준거를 결정한다.

본 론

통찰 개념에 대한 문헌고찰

● 사전적 정의와 우리말 명명

통찰(insight)은 'Inner'+'Sight'에서 유래된 말로 'Inner'는 내면(內)을, 'Sight'는 시선(視)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써 내면을 꿰뚫어 본다는 뜻이다. 즉, 통찰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사물이나 현상의 특징이나 관계 등을 명백하게 파악하는 심리적인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Hyun & Lee, 2002).

통찰은 'Insight'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Insight'는 영영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Cobuild English dictionary, 1997). 첫째, 만일 당신이 복잡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통찰력을 얻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얻게 된다. 둘째, 만일 누군가가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면, 그들은 복잡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어사전에서 통찰을 찾아보면 첫째, 온통 밝혀서 살핌. 전체를 환하게 내다봄. 통견(洞見), 투찰(透察), 둘째,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였을 때 시행착오법에 의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성의 중요한 작용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Lee, 1999).

통찰은 또한 '아하! 경험'이라는 말로도 특징 지워진다. 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갑작스럽게 머리 속에 떠오른다는 것이다.

● 통찰 개념의 사용 범위

통찰 개념은 심리학, 교육학, 상담심리학, 불교철학, 신학, 경영학, 의학, 간호학에서 사용되었다.

• 타 학문에서의 통찰

- 심리학에서의 통찰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사고과정의 핵심부분인 통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심리학자들이며, 또한 실험을 이용함으로서 통찰을 더 미세하게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들의 영향은 오늘날 심리학과 교육학 모두에서 감지되고 있다.

통찰의 개념은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에서 게슈탈트 심리학자 중의 한 사람인 쾰러의 노력으로 소개되었다. 쾰러는 우리 속에 갇힌 원숭이 무리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였다. 원숭이가 손으로 잡기 힘든 위치에 바나나를 놓아두고, 부근에는 도구로 쓸 수 있는 막대기나 죽은 나뭇가지를 놓아둔다. 이 실험에서 원숭이가 막대기나 나뭇가지를 도구로 지각했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바나나를 내려서 먹는 것을 보았다.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 것이다(Pyun, 2001). 원숭이는 목표인 바나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나나를 포함하는 문제 사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인지함으로써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과 결부시켜, 전체 속의 한 요소인 막대기를 전체와 관련시켜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쾰러는 이러한 심리 과정을 통찰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이 쾰러는 인간 행동을 고찰할 때 어떤 문제가 즉각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문제 상황에 갈등이 있을 때, 정신력을 이용하여 재조직 형태로 평형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재조직은 긴장을 해소시키고, 이러한 내적 갈등의 해소는 문제 요소들이 문제 전체와 관련하여 지각된 경우에만 이루질 것이라고 믿었다. 문제의 구조가 드러남으로써 문제 요소 간의 상호 관계와 기능을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찰 시기 동안 문제의 기본 구조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였다(Hwang, 1995). 즉, 통찰이란 지금까지 전체적인 연관을 갖지 않고 막연하던 사물이 새로이 다른 사물과의 연관을 가져 하나의 체제적인 분절된 전체로서 관찰 파악되는 것, 통찰에 의해서 사물이 존재하여 작용하는 사태의 구조가 분명해지는 것을 말한다.

Wertheimer(1959)는 통찰을 통해서 파악된 이해를 "어떤 상황이 새롭고 보다 심층적인 형태로 파악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분야가 광범해지며 보다 큰 가능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전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세부적인 것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서, 사고과정에서의 통찰의 중요성을 인식한 생각이다.

Oah 등(1999)은 통찰의 예로 고대 그리스의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일화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아르키메데스에게는 한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당시 왕이 새로 만든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 졌는지 아니면 다른 금속이 섞여 있는지를 물어왔던 것이다. 덩어리로 있을 때에는 단순한 문제이지만 모양이 복잡한 왕관에서는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가 않았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물이 가득 찬 욕조에 앉자 넘쳐 나는 물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냈다. 그는 "유레카!"를 외치면서 알몸으로 거리를 내달렸다.

그가 찾아낸 방법은 물을 가득 채운 그릇에 왕관을 넣고 그 왕관에 의해 넘쳐 나는 물의 양을 측정한 후에 왕관과 같은 무게의 순금 덩어리를 물에 담그고 나서 넘쳐 나는 물의 양과 비교해 보는 것이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를 통해 그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발견을 하기 위해서 그는 통찰에 의존했던 것이다. 통찰은 정보의 정신적 조작을 통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통찰은 "아하! 경험"이라는 말로도 특징 지워진다. 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갑작스럽게 머리 속에 떠오른다는 것이다.

아무런 관련 정보 없이 문제의 해결책이 갑작스럽게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무게가 동일한 금속들의 부피 즉, 밀도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금은 그 밀도가 다른 어떤 금속보다 높으며, 밀도가 낮은 은이나 동으로 떼어 낸 금만큼의 무게를 대신하려면 그 부피가 증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양이 복잡한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면 물에 넣었을 때 넘치는 물의 양은 동일한 무게의 금덩이에 의해 넘치는 물의 양과 동일해야 한다. 아르키메데스는 바로 이것을 발견한 것이다. 즉, 통찰을 위해서는 문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개념들이 활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상담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의 통찰

상담심리학에서는 자생적 통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내담자 스스로 자신이 가장 잘 의식하고 있던 내용에 대한 반복적인 자각을 통해 얻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인과성을 깨닫는 정도의 단편적인 통찰을 말한다(Kim, 2001). 또한 Hill(1982)에 의하면 통찰은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성격에서 주제, 패턴, 인과관계를 깨닫는 것이라 하였다. 즉, 반복된 패턴을 알고, 연쇄 고리가 이전의 반복 때문이라는 것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통찰이 새로운 결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각'과 '통찰' 및 '결정' 간의 관련성을 주장한 이도 있었다. Horowitz(1998)는 통찰을 통해 어떤 패턴이 다른 패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인식함으로써 통찰이 더욱 확장되어, 통찰에 도달한 개인은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얻어진 선택은 의미들의 배열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지각, 통찰 그리고 선택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현재의 경험이 자신의 이전 경험들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차리게 되고,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된다. 고통스러운 주제들과 이전의 미해결 갈등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전에 회피했던 기억과 환상에 대해 다시 작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난 후 자각과 통찰은 자아개념과 계획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새로운 결정들을 이끈다(Kim, 2001).

비슷한 의미로 정신의학에서는 통찰이란 전 의식적 이거나 무의식적이든 간에 정신적, 정서적 요소들이 이해되고 의식되는 과정으로, 한꺼번에 모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으로, 종종 무의식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 또는 병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무의식적인 근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Corsini, 2002). 이러한 통찰의 의미를 이용하여 정신심리학에서는 통찰치료가 행해지고 있다. 통찰치료는 환자 혹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정신병리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 인식과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장애나 부적응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신치료의 일종이다(Hyun & Lee, 2002).

- 교육학에서의 통찰

교육학에서는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유래한 통찰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통찰이론에 의하면 학습은 문제 장면에 대한 통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모든 학습이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정신 활동과 전체적 구조 파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학습을 인지 구조상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통찰은 유기체의 인지적 구조에 의해 재체계화 및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때 즉시 나타난다고 하면서,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전체적 해결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쾰러의 원숭이 실험에서 원숭이들은 문제해결에 대한 수단으로써 도구 즉, 나무 막대기의 수단적 가치를 불현듯 깨닫

게 되었는데, 이는 문제사태를 전체 장면에서 고려하였고, 바나나와 막대기 등의 관련성을 분석 및 구체화시키고, 환경의 구조를 바꾸면 되겠다는 종합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Hyun & Lee, 2002).

학습심리학에서 통찰은 문제 장면의 구조적 파악이나 인과적 파악을 하고 있는 창조적 사고를 가리킨다. 학습심리학에서의 통찰의 특징으로는 첫째, 통찰은 문제 장면의 배열에 의존한다. 즉, 해결과 관계되는 본질적인 요소들이 지각될 수 있도록 배열이 잘 되어 있을 때 쉽게 일어난다. 둘째, 한 번 통찰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은 곧 반복될 수 있다. 점진적인 해결이 시행착오의 법칙인데 비해 돌발적인 해결은 통찰의 법칙이다. 셋째, 통찰에 의해 달성된 해결방법은 새로운 장면에 적용될 수 있다. 통찰에 의해 학습된 것은 수단과 목적 간의 인지적 관계이다. 따라서 어떤 한 도구는 다른 장면에서 다른 도구로 대치될 수 있다고 하였다(Kwan, 2003).

Peile(1994)은 창조적 통찰은 한 번에 전체를 구분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한 지각 활동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통찰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 외부세계를 보는 과정으로서 기술될 수 있으며, 내적 및 외적 감각을 종합하여 활용하며, 특정한 사고, 감정 및 활동에 의한 인지과정에 의해 통찰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Kwan(2003)은 학습자가 문제 장면에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갑자기 이해하면 통찰이 일어난 것으로 보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아하(Aha)!'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Kwan(2003)은 또한 '통찰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통찰학습을 함으로써 문제가 갑자기 완전히 해결되며, 통찰에 근거한 행동은 유연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통찰에 근거한 해결책은 장기간 파지되며, 통찰을 통해 획득한 원리는 다른 문제 장면에 쉽게 적용된다고 하였다.

교육학에서는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통찰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전략으로서 문제를 풀 때 따라야 할 필요한 질문이나 단계를 제공하고 있다. 게슈탈트 심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문제의 기초 구조의 발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수행하고, 절차를 다시 확인하고, 결과를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둔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해결자가 통찰을 향해 체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Hwang, 1995).

- 불교철학에서의 통찰

불교철학에서는 '자기 자신과 세계를 포함하는 존재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는 뜻의 빠알리어(Pali)인 '위빠사나(vipassanā)'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권에서는 'insight' 즉, '통찰'로 번역되고 있다(Rhys Davids & Stede, 1975). 또한 '위빠사나(vipassanā)'는 불교철학에서 '사티(sati[sic. 원래의 발음은 사띠라고 함])'라는 개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티(sati)'는 마음을 쓴다는 의미의 '마음챙김(mindfulness)'과 인지적 측면의 '알아차림(awareness)'의 양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말로써 '마음챙겨 앎'으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Baek, 2004). Sayadaw(2002)는 사티(sati)의 특징이, 대상으로부터 들떠버리지 않음, 항상 대상을 시야에 두고 있음, 대상과의 일대일의 대면, 강한 생각에 의해 마음 챙김이 생겨남, 마음 챙김이 마음 챙김의 원인, 돌진함과 파고 들어감, 대상을 확고하게 붙잡음, 대상을 완전하게 덮어씌움, 즉시성, 지속성, 동시에 일어남, 조절하지 않음이라 하였다. 사티(sati)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상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마음은 관찰 대상 속으로 가라앉거나 잠겨들어야 하며, 어떤 사람을 파악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농부가 추수를 할 때 한 다발의 벼를 한 손으로 확고하게 붙잡을 때에만 낫으로 그 벼 다발을 자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관찰 대상을 확고하게 붙잡아야만 한다. 그러면 마음을 관찰하는 동안에 대상을 살짝 놓쳐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마음은 관찰 대상을 완전하게 덮어버려야 하고, 전체 대상으로 확산되어 그 대상 전체를 덮어 싸야 하며, 대상을 전체적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의 일부만을 관찰해서는 안 되며, 대상이 생겨나는 처음 상태에서부터 지속되는 중간 상태를 거쳐, 사라지는 마지막 상태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알아차리고 관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Sayadaw, 2002).

또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상과 알아차림 그리고 관찰 사이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일어나고 있는 대상과 알아차리는 마음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관찰 대상이 생겨나는 바로 그 순간, 그 대상을 알아차려야 하고 관찰해야 한다. 또한 알아차림에는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지금 생겨나고 있는 관찰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과 관찰은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 순간의 알아차림은 다음 순간의 알아차림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렇게 순간 순간 알아차림은 이어져야 한다고 하였다(Sayadaw, 2002).

- 신학에서의 통찰

신학에서는 통찰력을 '현상 사물을 두루 살펴서 전체를 환히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를 신학과 결부시켜 '영적 통찰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선과 악, 혹은 성령과 악령의 현상 등을 두루 통찰하는 능력을 말한다(Kim, 1995).

- 경영학에서의 통찰

경영학에서는 리더십에서 통찰력을 다루고 있다. Mangieri와 Block(2005)은 추론, 통찰력, 자아인식의 세 가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예일대 사고력 검사(Yale Assessment of Thinking)'라는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 도구를 이용하여 개

인의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 창조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Mangieri와 Block(2005)은 탁월한 리더들이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사고영역으로 추론, 통찰력, 자아인식의 세 가지를 들면서, 통찰력은 흔히 어떤 사안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지 않고 이를 알거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뛰어난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는 리더들은 사전에 준비된 생각 없이도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행동을 취할 줄 알며, 당장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거의 본능적으로 참신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 낼 줄 알며,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들을 뛰어넘는 제 삼의 안을 생각해낼 줄 안다고 하였다. 또한 외부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생겼을 때, 뛰어난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는 리더들은 재빨리 긍정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스스로 변화의 촉매제 노릇을 하기도 하며, 장래의 상황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자신들의 속한 조직이 변화에 뒤늦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광고부문에서도 통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업이 소비자의 숨은 심리를 파악하여 소비자도 모르는 잠재의식을 끌어내어 이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광고에서는 'insight 광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행간 읽기'라는 의미로써, 일반화된 소비자의 욕구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진심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의학에서의 통찰

정신의학을 제외한 의학 분야에서는 한글 번역어인 '통찰'보다는 영문 그대로인 'insight'로 통용되며, 질병에 대한 인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질병임을 인식할 수 있는 증상을 지니고 있는 것, 그리고 치료 요구를 인지하는 것을 망라한다(Buckley et al., 2004).

• 간호학에서의 통찰

간호학에서도 명시적으로는 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통찰을 병에 대한 인식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내면의 세계 곧,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에 대한 본태, 근원을 이해하는 것(Doh et al., 2000)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개념화와 측정이 시도된 바 있다(Baier, Murray, & McSweeney, 1998).

한편, 간호교육에서 주요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비판적 사고를 통찰과 관련지어 기술한 문헌을 찾아볼 수 있다. Alfaro-LeFevre(1999)는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를 위한 실제적 방법을 다룬 문헌에서, '비판적 사고'를 기술하는 다른 표현이 '아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갑자기 의심하고 있던 것을 어떤 것을 인식하게 되었거나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하!'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우리의 마음 뒤편에 있던, 그러나 말로 끌어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끌어냈을 때의 '아하!'경험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갑자기 알아차리거나 통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Alfaro-LeFevre(1999)는 통찰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만일 좀 더 생각해야 할 어떠한 것에 대해 확신이 가지 않으면, 이를 간단한 질문으로 작성하여 다른 사람과 토론할 것을 제안하였다. 질문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사고(thinking)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관점을 넓히고,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Johnson(1994)은 예술로서의 간호의 개념을 분석하면서, 그 속성 중 하나가 환자와 마주함에 있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은 직관, 통찰, 지각능력, 전체를 보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간호실무 상황이 복잡해짐에 따라 간호사는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불확실한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되고, 환자의 상황이 복잡해지면 환자가 자신의 요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거나, 자신의 요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의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야 하며, 그 상황에서 적절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바로 그 때 필요한 능력이 환자와 마주함에 있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다.

위에서 고찰한 문헌 외에 간호학에서 명백하게 '통찰(insight)'이라는 용어로 사용된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Walker와 Avant(1995)는 개념분석을 위해 그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 규명할 때, 그 개념의 명백한 활용 뿐 아니라 암묵적인 활용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기에, 간호실무에서 암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찰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통찰 개념이 간호실무에서 암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 예로, 간호실무에서 간호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대상자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를 파악한다'는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환자를 파악한다'함은 대상자의 전체적인 상황 즉, 대상자의 입원동기, 주호소, 신체사정, 검사결과 등 현재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 및 분석함으로써, 대상자가 처한 상황을 인과관계로 인식하여 판단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함축적이고도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언어로 통용되고 있다. 또한 이는 간호대상자에게 어떠한 간호를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간호사가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환자를 파악한다'의 암묵적 의미는 Johnson(1994)이 제시한 바와 같이 간호사가 경험하는 급박하고도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상황, 또는 복잡한 환자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연관을 갖지 않고 막연하던 사물이 새로이 다른 사물과의 연관을 가져 하나의 체제적인 분절된 전체로서 관찰 파악되는 것' 또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갑자기 파악하는 것'이라는 통찰의 교육학적, 심리학적 의미와 상통한다.

통찰의 잠정적 기준 목록과 속성

통찰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범위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다음의 잠정적인 기준 목록과 속성을 확인하였다.

● 통찰의 잠정적 기준 목록(provisional criteria list)

① 자신의 내면을 통하여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것이다(Baek, 2004; Crowe & Doran, 2005; Hyun & Lee, 2002; Hwang, 1995; Peile, 1994; Rodrigues, 1990).

② 문제의 본질을 전체와 관련하여 인지적으로 지각하고 재구조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Hyun & Lee, 2002; Hwang, 1995; Oah et al., 1999; Ohn, 2003; Sayadaw, 2002; Sternberg & Davidson, 1995).

③ 갑자기 섬광이 비추듯이 오는 것이다(Alfaro-LeFevre, 1999; Baek, 2004; Crowe & Doran, 2005; Hyun & Lee, 2002; Kwan, 2003; Sayadaw, 2002).

④ 이전의 통찰은 파지(retention)와 전이(transfer)를 통해 새로운 통찰의 발생을 촉진하여 통찰하는 습관이 형성된다(Baek, 2004; Crowe & Doran, 2005; Hyun & Lee, 2002; Kwan, 2003; Ohn, 2003; Sayadaw, 2002).

⑤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얻게 되는 것이다(Alfaro-LeFevre, 1999; Crowe & Doran, 2005; Hwang, 1995; Johnson; 1994; Sayadaw, 2002).

⑥ 통찰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Hyun & Lee, 2002; Kwan, 2003; Oah et al., 1999; Ohn, 2003; Sayadaw, 2002).

⑦ 어렵고 복잡한 어떤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것이다(Crowe & Doran, 2005; Johnson; 1994; Peile, 1994; Rodrigues, 1990).

⑧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에 대한 본태,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다(Baier, Murray, & McSweeney, 1998; Doh et al., 2000; Hyun & Lee, 2002; Kim, 2001).

⑨ 병에 대한 인식이다(Buckley et al., 2004).

● 통찰의 속성 확인

통찰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 통찰은 문제 상황의 전체적인 구조를 발견하고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쳐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속성, 해결해야만 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속성, 이전의 통찰에 의해서 발생이 촉진되는 속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통찰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압박감이 있을 때 얻어진다(⑤).

② 문제 상황의 전체적인 구조를 발견하고 정신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의 산물이다(①②).

③ 통찰의 순간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온다(③).

④ 추상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것이다(⑥⑦).

⑤ 이전의 통찰에 의해 새로운 통찰의 획득이 촉진된다(④).

모델 사례

모델 사례란 개념의 중요한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예 즉,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념의 필수적인 양상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다음 사례를 모델 사례로 제시한다.

A 간호사는 혈액종양내과 병동에 6년째 근무하고 있다. 책임간호사로 밤번 근무를 하고 있던 A 간호사는 신규 B 간호사가 측정한 환자들의 활력증후 기록을 검토하던 중, C 환자가 갑작스럽게 고열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B 간호에게 환자상태에 대해 확인을 해보니, 농축 적혈구 수혈을 하고 있는 혼자로 당직의사에게 전화로 농축 적혈구 수혈 중에 고열이 발생했다고 알렸으며, 당직의사는 수혈 중에 일시적으로 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관찰하자고 했다고 하였다. 이에 B 간호사도 혈액종양내과에서 수혈 중에 고열이 발생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직의사와의 통화내용을 간호기록에 옮겨 적고 새벽에 투여해야 할 투약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A 간호사는 B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들의 대략적인 상황을 빨리 검토한 후 책임간호사로서 확인해야 할 여러 업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상태였으나, 혈액종양내과 환자에게 고열이 발생하는 것이 감염 때문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마음에 C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로 하고 기록을 검토하였다. C 환자는 백혈병 환자로 히크만 도관을 가지고 있으며, 공고요법으로 고용량 항암화학요법을 위해 입원한 환자였다. 남자 63세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인과 딴둘이 지방에서 살고 있었다. A 간호사는 상황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환자에게로 갔다. C 환자를 대면하는 순간 우선 환자의 외모에서 풍기는 청결하지 못한 느낌이 마음에 걸렸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의 상황을 물으니, 수혈을 시작 직후부터 오한이 나기 시작하여 30여분 후 고열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A 간호사는 C 환자의 고열이 수혈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혈과

동시에 오한이 지속되다가 열이 났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수혈 때문이 아니라 C 환자가 가지고 있는 히크만 도관의 감염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이전에도 케모포트를 가지고 있던 환자가 입원하여 영양제를 공급하던 중 오한과 고열이 발생했고 그 원인이 케모포트 감염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A 간호사는 이 환자에게도 히크만 도관 내부에 상주하고 있던 병원균이 수혈과 동시에 혈행을 통해 순환하면서 오한과 고열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곧바로 집에서 히크만 도관 관리를 누가 하였는지 묻자 옆에 있던 부인이 퇴원 전에 간호사에게 교육받은 대로 하였다고 대답하면서, 약간 자신 없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A 간호사는 환자와 부인의 자신 없어 하는 모습과 연령대로 볼 때 집에서 도관을 교육받은 대로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동시에 하게 되었다. 이에 A 간호사는 히크만 도관 때문에 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더욱 의심하게 되었고, 즉시 환자의 히크만 도관 삽입부위를 사정하여 도관 주변에 발적과 부종 및 압통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제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오한 및 고열의 원인은 수혈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 히크만 도관의 감염이라고 판단하고, 즉시 당직 의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의사는 즉시 혈액의 미생물 배양검사 및 경험적 항균제 투여를 지시하였으며, 히크만 도관을 제거한 후 미생물 배양검사를 의뢰하였다. C 환자는 항균제 치료를 시작한 지 24시간 내에 체온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도관 삽입부위의 발적과 부종 및 압통이 감소되었으며, 이후에 혈액과 히크만 도관의 미생물배양 결과에서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균이 확인되었다. B 간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C 환자가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조기에 예방한 것이다.

이 모델 사례에는 통찰 개념의 모든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A 간호사는 고열의 원인을 밝혀내야만 하는 압박감을 스스로 느끼고, 문제의 전체적인 상황 즉, 연령, 사회경제적 환경, 외모, 히크만 도관 관리, 보호자와의 문답, 표정, 열이 발생할 당시의 상황, 히크만 도관 삽입부위의 피부상태 등에서 고열이 발생한 문제 상황의 전체적인 구조를 발견하였다. 또한 고열과 감염원으로서의 히크만 도관을 순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였다. A 간호사가 복잡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점에 도달한 데는 이전에 경험했던 유사한 상황에서의 통찰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젊은 보호자가 없는 노인 환자들이 히크만 도관 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도관 감염이 발생되었던 이전의 경험, 케모포트를 갖고 있던 환자가 수액 주입 후 열이 났던 경험, 갑자기 오한이 발생하는 것은 병원균의 혈행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지식 등이 기억 속에 남아 있다가 종합적으로 이 환자의 상황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A 간호사는 이전의 유사한 통찰 및 활용 가능한 기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이 가능했다. 또한 이 통찰은 장기간 기억 속에 남아서 파지 및 전이되어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통찰의 촉진적인 기능으로 말미암아 A 간호사는 통찰을 자신의 사고 습관으로 내면화하게 될 것이다.

개념의 다른 사례들

다음 단계는 경계 사례, 반대 사례, 창안된 사례를 제시한다. 다음 사례들이 어떠한 이유로 모델 사례가 될 수 없는 가를 보여줌으로써 통찰 개념의 속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 경계 사례

경계 사례란 개념의 중요한 속성 모두를 포함하지 않고, 개념 속성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개념사용의 실례이다.

낮번 근무를 하고 있는 A 간호사는 간암 및 간경변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한 명이 정오까지 계속 수면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 A 간호사는 환자가 낮에도 깨어나지 않고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것이 불안하여 환자의 기록과 검사결과를 확인하였다. 자세히 보니 이틀 전부터 대변을 보지 않고 있었고, 간기능 수치도 계속 오르는 추세였으며, 빌리루빈 수치 또한 최고치에 달해 있었다. A 간호사는 실제로 이전에 돌보던 환자 중에 간 기능부전 환자가 의식이 저하되어 간성 뇌증이 되었던 상황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 환자도 간 기능부전으로 인한 간성 뇌증의 증상임을 확신하고, 의사에게 환자의 의식상태에 대해 알리면서 간성뇌증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의사는 환자를 사정하고 나서 잠시 후 환자에게 부착되어 있는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즉시 뗄 것을 지시하였다. A 간호사는 그제야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부착하고 있으며, 새벽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밤번 간호사가 새벽에 마약성 진통제를 정맥으로 투여했다는 것을 생각해내었다. 이 환자는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제거한 후 저녁시간에 의식이 회복되었으며, 간성뇌증이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의 과다로 인하여 기면상태가 된 것이었다.

위 상황에서 A 간호사는 낮에도 수면을 취하고 있는 환자를 보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느끼고, 이전의 통찰 경험을 떠올리면서 문제 상황을 순간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부착하고 있다는 사실과 새벽에 밤번 간호사가 마약성진통제를 주사한 것 등 문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간부전 말기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만 이해하였으며, 따라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였다.

● 반대 사례

반대 사례란 중요한 속성과 반대되고 분명히 그 개념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신규 간호 관리자인 A는 선배 간호 관리자로부터 간호사들이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분이 언짢아졌다. 이에 바로 간호사들에게 초과 근무가 계속될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간호사들의 시간외 근무는 계속되었으며, 오히려 간호사들로부터 불만을 사게 되었다. 이에 다시 시간외 근무의 원인을 여러 간호사들과의 면담 및 관찰을 통해 종합하여 숙고한 결과, 최근에 새롭게 이동해 온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치료의 지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처방의 혼선에 의해 간호사들의 의사소통 및 확인 업무가 증가되어 제 시간에 업무를 마치지 못했음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다.

위 사례에는 통찰 개념의 중요한 속성이 모두 빠져 있다. A 간호 관리자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통찰을 촉진할 만한 이전의 지식이나 통찰 경험이 없었으며, 문제 상황의 원인을 간호사로 국한시켜 생각함으로써 문제의 관점을 일부로 국한시켰으며,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책을 명백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간호사들의 불만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 창안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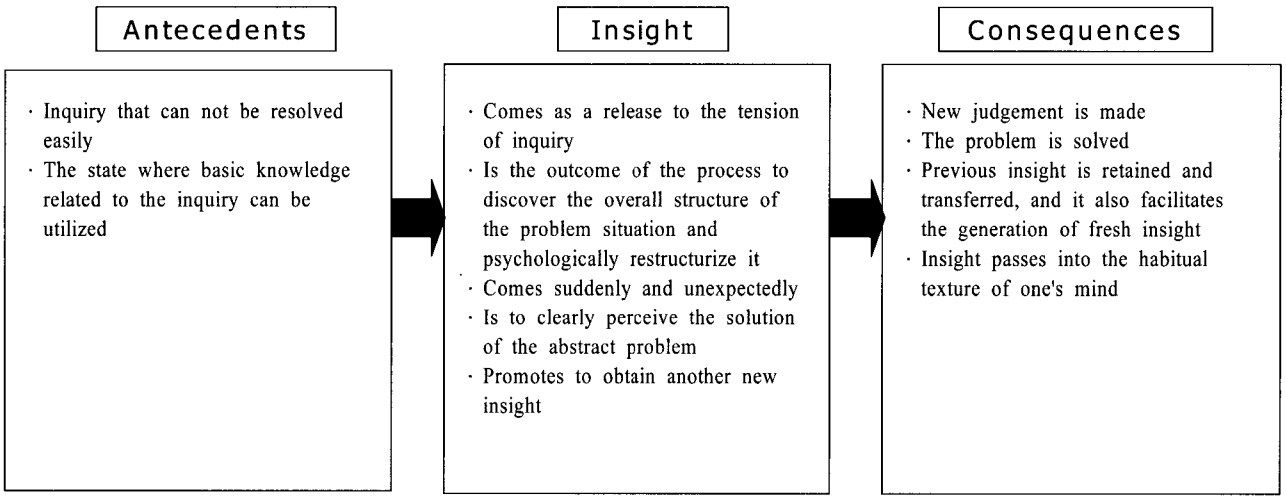
창안된 사례는 우리 자신의 경험 밖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구성된 사례이다. 일상적인 상황의 바깥에서 이 개념을 다룸으로써, 그 속에서 결정적인 속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화성인은 좁은 굴속을 지나다가 거대한 물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옆에 있던 친구와 그 물체를 들어올리긴 했지만 워낙 크기가 커서 지나갈 수 없었다. 주변엔 조그만 공처럼 생긴 형형색색의 다른 물체들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물체를 밟고 지나가자 굴속의 벽이 조금씩 바깥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이 때 화성인의 머리 속을 순간적으로 스치는 것이 있었다. 이 공처럼 생긴 형형색색의 물체를 차례차례 밟아 보았다. 그랬더니 굴속이 벽이 조금씩 바깥으로 이동하여 넓어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화성인은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되었다.

위 사례에서 화성인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발견하고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쳐 순간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새로운 통찰의 획득이 촉진된다.

● 선행요인과 결과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것은 통찰의 속성을 보다 더 정련할 때 유용하다. 선행요인은 그 개념의 조건 즉, 개념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해야 하는 사건을 의미하며, 결과는 그 조건의 후반부 즉, 그 개념이 발생한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을 의미한다(Walker & Avant, 1995). 본 통찰 개념의 선행요인은 쉽게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문제(Crowe & Doran, 2005; Hwang, 1995), 및 그 문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Figure 1> Identity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insight

지식들이 활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Oah et al., 1999)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찰 개념의 결과로써 새로운 판단이 만들어지며(Crowe & Doran, 2005; Hwang, 1995), 문제가 해결된다(Hyun & Lee, 2002; Kwan, 2003; Oah et al., 1999; Ohn, 2003). 이전의 통찰 결과는 파지되고 전이되어 새로운 통찰의 발생을 촉진하며, 이러한 반복되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통찰이 개인의 사고 습관으로 내면화된다(Baek, 2004; Crowe & Doran, 2005; Hyun & Lee, 2002; Kwan, 2003; Ohn, 2003; Sayadaw, 2002)<Figure 1>.

경험적 준거

본 통찰 개념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경험적 준거를 제시하려고 한다. 경험적 준거란 개념의 속성이 실제 현장에서 존재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Walker & Avant, 1995). 즉, 통찰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준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Mangieri와 Block(2005)이 개발한 '예일대 사고력 검사(Yale Assessment of Thinking)'이라는 도구에서 통찰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일대 사고력 검사'는 추론, 통찰력, 자아인식의 세 가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이 도구를 이용하여 개인의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 창조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 도구는 총 6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21개 문항에서 통찰을 측정하고 있다. Mangieri와 Block(2005)은 또한 통찰을 내적 인지과정과 외적 인지과정으로 구성하고 측정하고 있는데, 내적 인지란 효과적인 의사결정, 문제해결,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정신적 전략으로 설명하였으며, 외적 인지란 내적 인지에서 도출된 사고 결과로서 개인이 채택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결론 및 제언

결론

Walker와 Avant(1995)의 개념 분석 틀에 근거하여 통찰의 개념을 분석한 결과, 통찰 개념은 (1)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압박감이 있을 때 얻어지는 속성, (2) 문제 상황의 전체적인 구조를 발견하고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속성, (3) 통찰의 순간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오는 속성, (4) 추상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속성, (5) 이전의 통찰에 의해 새로운 통찰의 발생이 촉진되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찰 개념의 전례는 쉽게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이 활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찰 개념의 결과로써 새로운 판단에 도달하여, 문제가 해결되며, 한 번의 통찰 결과는 파지되고 전이되어 새로운 통찰이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치며, 반복되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통찰이 개인의 사고 습관으로 내면화된다.

모델 사례와 기타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간호사는 임상 상황에서 흔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간호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겸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상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범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뜻하지 않은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다시 회복시키려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통찰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인지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통찰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산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연계하여 인지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다.

Ohn(2003)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지적 사고뿐만 아니라 통찰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정보들이 효율적으로 정교하게 조직화된 지식구조 위에서 효율적인 인지전략들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정보들의 순간적인 연결이나 신속한 인출과 같은 인지활동의 극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극대화된 인지활동의 효율화는 전문가 수준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가능한데, 이 수준의 전문성은 최소한 10년 간의 밀도 있는 꼼꼼한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간호사의 통찰은 간호사에게 필요한 다양한 간호지식을 다양한 상황과 연계하여 고르게 갖추고 있을 때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통찰은 문제 상황을 전체로 인식하고 그 원인이 되는 원리나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최근의 간호가 세분화 및 전문화되어, 한 분야에만 종사하는 것은 통찰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통찰 개념은 간호교육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거의 없으나, 본 개념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속성을 살펴볼 때 '비판적 사고'와의 관련성을 유추하게 된다. 1992년에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에 의해 비판적 사고는 목적성을 띄는 자기 조절적인 판단으로써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인지적인 엔진'으로 정의하면서, 비판적 사고 기술을 해석, 분석, 평가, 추론, 설명, 자기 조절(self-regulation)로 분류하고 있다(Facione, Facione, & Giancarlo, 1996). 또한 Scheffer와 Rubenfeld(2000)에 따르면, 간호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의 습관 중에 '전후관계에 대한 조망(contextual perspective)'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통찰의 속성으로 규명한 '문제 상황의 전체적인 구조를 발견하고 정신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의 산물'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겠다. 또한

비판적 사고와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Park(1989)은 비판적 사고는 아무 대상에 대해서,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주체가 그 대상에 대하여 위기감, 긴박감, 불안의식, 호기심 등을 수반할 때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통찰의 선행요인인 '쉽게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문제 상황'과 그 의미가 통한다 할 수 있겠다.

Facione 등(1996)은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낸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통찰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새로운 판단이 만들어진다.'와 '문제가 해결된다.'와 관련이 있다. 사고습관의 관점에서도 비판적 사고와 통찰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Facione 등(1996)은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인지적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사용하려는 성향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의 특성을 그 사람의 사고 습관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통찰의 결과가 파지되고 전이되어 새로운 통찰이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통찰의 반복을 통해 통찰이 개인의 사고습관으로 내면화되는 것으로 설명한 통찰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간호교육자는 임상 상황에서 간호학생이나 간호사로 하여금 통찰에 기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문제에 접하였을 때 그 문제의 전체적인 구조와 원리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파악된 구조와 원리를 재구성하고 재조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찰 촉진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학에서는 통찰 촉진 전략으로 문제에 대하여 발문(questioning)을 이용한 도움이나 힌트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Crowe & Doran, 2005; Hwang, 1995), 간호교육 분야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발문에 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Twibell, Ryan, & Hermiz, 2005; Walker, 2003). 발문은 학습활동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던져지는 문제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질문을 말한다. 통찰학습에서 발문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기초 구조의 발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때 따라야 할 필요한 질문이나 단계를 제공함으로써 통찰을 향해 체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며(Hwang, 1995), 비판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전략으로서의 발문은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유발하여 새로운 논의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Twibell, Ryan, & Hermiz, 2005; Walker, 2003). 이와 같이 비판적 사고 촉진 전략과 통찰 촉진 전략으로 발문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봄으로써, 또한 비판적 사고가 통찰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임상 상황에서도 간호사의 교육에서 발문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촉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통찰의 발현을 위해서는 분산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연계하여 인지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필수적이다. 최근에 많은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를 정보화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사람이 수행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간호사가 사고기능을 통해 도달해야 할 판단과 의사결정 기능을 컴퓨터가 대신 해주고 있고, 간호기록이라는 일종의 글쓰기를 통한 사고활동은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자동 연결 기능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통찰의 전례로 기술한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에 대한 압박감'이 컴퓨터의 의사결정 기능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간호사가 매 순간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인식하여 재구조화하고, 순간적으로 지식을 인출하여 활용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사결정 기능을 가진 간호정보화 시스템 활용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간호사의 사고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교육에서 통찰 개념은 명시적으로는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으나, 간호실무 분야에서 암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간호정보화 시스템은 간호사의 사고기능을 대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개발 범위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에서 통찰 과정을 밝히고, 통찰을 측정하며, 통찰을 촉진할 수 있는 발문 등의 전략을 연구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언

- 간호사의 통찰 경험과정을 밝힐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 간호사의 통찰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 간호사의 통찰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Alfaro-LeFevre, R. (Eds.) (1999).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a practical approach(second ed.).* Florida: Saunders.

Baek, J. Y. (2004). *A study on awareness in psychotherapy-*

counseling and vipassanā medi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Graduate School of Buddhism.

Baier, M., Murray, R. L., & McSweeney, M. (1998).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insight. *Arch Psychiatr Nurs, 12*(1), 32-40.

Buckley, P. F., Hrouda, D. R., Friedman, L., Noffsinger, S. G., Resnick, P. J., & Calmin-Shingler, K. (2004). Insight and its relationship to violent behavior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m J Psychiatry, 161*(9), 1712-1714.

Cobuild English dictionary (1st ed.). (1997). London: Willam Collins & Sons.

Corsini, R. J. (2002). *The dictionary of psychology.* NY: Brun ner-Routledge.

Crowe, F. E., & Doran, R. M. (Eds.). (2005). *Insight: A study of human understanding.*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Doh, B. N., Lee, G. Z., Oh, K. O., Ahn, H. R., Lee, J. J., Kim, H. J., Lee, K. J., Kim, M. Y., Park, H. S., Bae, J. I., Son, K. H., Lee, H. K., Kim, Y. H., Kim, H. S., Lee, M. R., Kim. E. J., & Song, Y. H. (2000). *Introduction to new psychiatric nursing.* Seoul: Jungdam Media.

Facione, N. C., Facione, P. A., & Giancarlo, C. F. (1996).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test manual(1st ed. Rev.).* CA: California Academic Press.

Hill, C. E. (1982). Counseling process research: Methodolog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Couns Psychol, 10,* 7-19.

Horowitz, M. J. (1998). *Cognitive psychodynamics from conflict to character.* NY: John Wiley & Sons, Inc.

Hwang, H. J. (1995). Problem solving and insight in Gestalt perspective. *Edu Dev, 95*(5), 93-99.

Hyun, J. I., & Lee, H. C. (2002). *Dictionary of education terminology.* Seoul: Dongnam planning.

Johnson, J. L. (1994). A dialectical examination of nursing art. *Adv Nurs Sci, 17*(1), 1-14.

Kim, Y. H. (2001). *A study of the counselor's verbal responses on client's awareness and insight during the counseling pro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im, Y. S. (1995). *Spiritual insight power.* Seoul: Theology of Bible.

Kwan, D. H. (2003). *Education psychology.* Seoul: Wonmisa.

Lee, S. H. (ed). (1999). *The great dictionary of Korean(3rd ed.).* Seoul: Minjungseorim.

Lee, K. M. (ed). (1991). *The great dictionary of philosophy.* Seoul: Sinteyangsa.

Mangieri, J., & Block, C. C. (2005). *Power thinking*(Gwak, M. K. translation). Paju: Soso(original publication 2004).

Oah, S. Z., Kim, H. I., Lim, Y. S., Hyeon, M. H., Kim, B. S., Kim, J. E., Kim, H. J., Yang, B. H., Lee, J. I., Yang, D. G., Choi, C. H., & Lee, J. H. (1999). *Human behavior and psychology.* Seoul: Hagjisa.

Ohn, K. C. (2003).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Kyoyugkwahagsa.

Park, J. H. (1989). *Principle of curriculum planning for critical thinking and crea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Peile, C. (1994). *The creative paradigm: Insight, synthesis and knowledge development.* Newcastle: Avebury.

Pyun, Y. G. (2001). *Understanding of teaching and learning theory.* Seoul: Hagjisa.

Rhys Davids, T. W., & Stede, W. (1975). *Pali-English dictionary.* New Delhi: Rajbandhu Industrial Company.

Rodrigues, H. (1990). *Insight and religious mind: An analysis of Krishnamurti's thought.* N.Y: Peter Lang.

Sayadaw, U. P. (2002). *The road of vipassanā training*(Kim, J. S. translation). Seoul: Borisu Sonwon(original publication 1991).

Scheffer, B. K., & Rubenfeld, M. G. (2000). A consensus statement on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J Nurs Educ, 39*(8), 352-359.

Shin, K. R. (1994). A concept analysis of intuition. *J Korean Acad Nurs, 24*(2), 206-215.

Sternberg, R. J., & Davidson, J. E. (1995). *The nature of insight.* London: The MIT Press.

Twibell, R., Ryan, M., & Hermiz, M. (2005). Faculty perceptions of critical thinking in student clinical experiences. *J Nurs Educ, 44*(2), 71-79.

Walker, S. E. (2003). Active learning strategies to promote critical thinking. *J Athl Train, 38*(3), 293-267.

Walker, L. O., & Avant, K. C. (1995).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CA: Appleton and Lange.

Wertheimer, M. (1959). *Productive thinking.* NY: Harper & Brothers.

Concept Analysis of Insight

Hwang, Jiwon[1)]

1)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General Manager, Department of Nursing Service, Samsung Medical Center

Purpose: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and clarify the ambiguous concept of insight. **Method:** This study used the process of Walker & Avant's concept analysis. **Results:** Insight can be defined in terms of its attributes as follows: Insight 1) comes as a release to the tension of inquiry, (2) is the outcome of the process to discover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problem situation and psychologically restructurize it, (3) comes suddenly and unexpectedly, (4) is to clearly perceive the solution of the abstract problem, and (5) promotes obtaining another new insight. The antecedents of insight include inquiry that can not be resolved easily and also a state where basic knowledge related to the inquiry can be utilized. The consequence of the insight is (1) a new judgement is made, (2) the problem is solved, (3) previous insight is retained and transferred, and it also facilitates the generation of fresh insight, and (4) it passes into the habitual texture of one's mind. **Conclusion:** Nurse educators need to facilitate nursing students and nurses to accumulate systematically, various information that can become the basis of insight and provide them with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a variety of problem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provide questions to learners as an education strategy to allow them to gain insight into problem solving. From now on, insight needs to be studied in conjunction with critical thinking and questioning in order to enhance nurses' ability to resolve problems.

Key words : Insight, Concept analysi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wang, Jiwon*
Department of Nursing Service, Samsung Medical Center
50 Ilwon-dong, Kangnam-ku, Seoul, 135-710, Korea
Tel: 82-2-3410-1574 Fax: 82-2-3410-1569 E-mail: jiwonh.hwang@samsung.com